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빛의 사람들

2018.4.
272

천주교 서울대교구 사회사목국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발행 : 현대일 루도비코 신부
주소 : 02862 서울시 성북구 삼선교로 20길 27 (빛의사람들)
전화 : 02)921-5093 FAX : 02)921-7847 / E-Mail : kyodo@catholic.or.kr
홈페이지 : www.catholic-correction.co.kr

부활을 축하합니다!

Alleluia! Alleluia!

렘브란트의 '성 토마스의 의심'
(The Incredulity of St. Thomas By Rembrandt, 1634)

"네 손가락을 여기 대 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네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요한 20,27).

2월 후원회원 월례미사와 센터미사

2018년 2월 김석원 파트리치오 신부님께서 교정사목에서 봉헌하시는 마지막 월례미사와 센터미사가 5일(월)과 10일(토)에 있었습니다. 김석원 신부님께서는 월례미사 강론 말씀으로 올해도 성모님과 함께 기도한다면 하느님께서 필요한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하셨으며, 센터미사에서는 우리의 상처를 주님께 온전하게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석원 신부님께서는 후원회원들과 봉사자, 해밀(피해자) 가족들, 출소자 형제들의 아쉬움 속에서 교정사목센터의 모든 가족과 인사를 나누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사목지를 향해 떠나셨습니다. 그동안 교정사목을 위해 기도해주시고 고생해주신 김석원 파트리치오 신부님을 위해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회와 제51차 정기총회

지난 2월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이사회와 정기총회가 열렸습니다. 이사회는 2월 10일(토)에 있었으며 이날은 교정사목의 이사, 감사님들께서 함께 모여 2월 24일(토)에 열린 제51차 정기총회의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는 시간이었고, 이때 정해진 새로운 신임이사 선임 건과 2017년도 결산 및 2018년도 예산 심의 안건들을 정기총회에서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사장이신 유경촌 티모테오 주교님을 비롯한 이사, 감사, 정회원분들과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누었습니다. 특히 각 교정시설의 대표봉사자분들이 정회원의 자격으로 함께하시며 교정사목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진행된 18년도 이사회와 정기총회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가 건강하게 하느님의 복음을 교정시설에 전할 수 있는 중요한 밑바탕이 될 것입니다.

3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3월 5일(월) 가톨릭회관 3층 강당에서 현대일 부위원장 신부님의 주례와 이상원 부위원장 신부님과 강봉묵 신부님(소년원 담당)의 공동 집전으로 후원회원 월례미사를 봉헌하였습니다. 현대일 신부님께서는 강론으로 “오늘 독서(2열왕 1-15)에서 나아만은 나병을 치유하기 위해 엘리사를 찾았지만 단지 요르단강에서 몸을 씻으라는 말에 포기하고 돌아서려 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사소한 행동을 실천함으로 나병이 치유되었다. 오히려 너무 평범하고 쉬운 일이기에 포기하려고 했지만 마음을 열었기에 하느님께서 응답하신 것이다. 이처럼 하느님은 우리의 평범하고 익숙한 일상 속에 계신다. 자신의 시간과 재물을 나누고 후원자와 봉사자가 되어주신 여러분이 기적이 되신 것이다.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우리 주변의 그리고 일상 속에서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길 바란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 임명되신 대표 봉사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였습니다. 축하와 격려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평화의집 형제의 혼인미사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창세 1,27-28).

이처럼 남녀의 결합인 혼인은 주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며, 하느님의 축복을 받고, 모든 이에게 축하를 받는 일입니다. 지난 3월 10일(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출소자 쉼터인 평화의집 홍○○ 베네딕도 형제가 많은 이들의 축복 속에서 혼인하였습니다.

돈암동 본당에서 거행된 이번 혼인미사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현대일 부위원장 신부님의 주례와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이상원 신부님,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위원장이셨던 이영우 신부님, 전주교구 문규현 신부님, 청주교구 신성국 신부님의 공동 집전으로 성대하게 봉헌되었습니다. 이영우 신부님께서는 강론으로 "한반도의 봄소식처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시기에 홍 베네딕도 형제와 김 베네딕다 자매님이 한가정을 이루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홍 베네딕도 형제는 탈북한 후 간첩혐의로 1년간 수감 생활을 하는 등 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예전의 안 좋은 기억과 앞으로 있을 역경을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화합하여 잘 극복해내기를 바라면서 신앙 안에서도 더 큰 일치를 이루기를 바란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이어서 혼인예식은 전주교구의 문규현 신부님의 축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를 축복하기 위하여 110명의 귀중한 하객들도 찾아주셨고, 이에 홍 베네딕도 형제는 감격에 복 받쳐 메이는 목을 삼키며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때문에 먼 길을 돌아서 이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났고, 여러분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나와 같은 탈북민들도 마음 놓고 자유롭게 고향에 갈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또 밝게, 굳세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객들을 향해 감사의 인사와 당찬 포부를 말해주셨습니다. 또 현대일 신부님께서는 "새롭게 시작하기에 앞서 혼자라면 낯설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우리가 함께 새로운 집이 되어주겠다고, 새로운 가족, 친구, 이웃이 되어주겠다고 이 자리에 모인 것이라 생각한다. 함께 걸어가고, 서로의 보금자리가 되어주시기를 부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의 혼인성사는 탈북민이자 동시에 출소자인 형제가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담장 안이 아닌 공동체 안에서 가정을 꾸리면서 내딛은 첫 번째 걸음이 되었습니다. 하느님의 사랑에는 탈북민이건, 출소자건 차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맺어주신 이 부부가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을 가득 안고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그리고 수용자와 출소자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있을 때, 우리는 기꺼이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소중한 본당에서 아름다운 부부가 탄생할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돈암동 성당 주임 신부님과, 보좌 신부님, 수녀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홍 베네딕도, 김 베네딕다 부부의 행복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연재되는 코너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접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서, 그 안에서 나타나는 죄와 벌, 교정의 모습들과 하느님의 뜻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담

현대일 루도비코 / 사회교정사목위원회 부위원장 신부

〈에덴동산의 아담과 하와〉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든 첫 번째 사람이 아담입니다. 창세기에 적힌 아담의 이야기가, 아담이라는 개별의 인간이 행한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아담이라는 히브리말 자체가 '사람'을 뜻하기에 인간 보편에 대한 신학적 반성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 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 먹어서는 안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먹어도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이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 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창세 2,16~17;3,1b~7;8b).

아담이 죄를 짓게 되는 과정을 차분히 살펴보면, 우리가 죄를 짓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어보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선과 악을 알게하는 나무에서는 따 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따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유혹은 여러 가지로 다가옵니다. 이 계명을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고 왜곡하기도 하고, '결코 죽지 않는다' 라며 부정하기도 합니다. 내가 '하느님처럼' 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더 탐하기도 하고, 재물을 더 원하기도 합니다. '하느님처럼' 되고 싶어서, 내 맘대로 무엇이든지 하고 싶어서, 내 맘대로 쓸 수 있을 듯 싶어서, 그래서 죄를 짓습니다. 먹음직하고, 탐스럽습니다. 내 마음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건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첫반응은 알몸인 것을 알게 됩니다. 부끄러움입니다. 수치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느님 앞을 피합니다. 그것이 벌입니다. 하느님께서는 '그 열매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아담과 아내가 그 열매를 먹고는 죽지 않았네', '에이, 하느님 거짓말하셨네', '그냥 협박이었네' 라고 치부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이 죽음인 것입니다. 전에는 알몸이지만 하느님과 마주할 수 있었는데, 이제 죄스러움과 부족함, 부끄러움으로 하느님께 솔직한 모습으로 다가서지 못합니다. 이제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불러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재판장의 모습 같습니다. 아담의 답변이 재미있습니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이러한 죄를 지은 것은 여자가 그 열매를 주었기 때문이고, 또한 여자를 만드신 분은 하느님 당신이니, 당신 탓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죄를 짓고 남탓, 팔자 탓, 주변 탓, 하느님 탓하는 우리들 모습을 잘 보여줍니다. 재판이 끝나고,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아담은 저주받은 땅을 고통 속에서 부쳐 먹어야 하고,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것이며, 먼지로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판결을 받습니다. 노동 속에서 살아야 할 인간 생의 운명과 먼지로 돌아가야 할 죽음의 운명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은 아담이 죄를 범함, 그리고 그에 따르는 반응, 재판, 판결의 순으로 나열해 두었습니다. 우리네 상황과 같습니다. 죄, 반응, 재판, 판결, 이제 하느님께서는 아담을 함께 살고 있던 고향 에덴동산에서 추방하십니다. 이 동산 길목을 못들어오게 막아두십니다. 교도소 수감의 의미 중 하나가 공동체와의 분리라고 생각한다면, 최초의 인간 아담은 교도소에 들어가게 된 최초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한다면 수감된 것이 아니라, 추방 혹은 귀양의 형을 받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사건 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몸소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 주었다(창세 3,21)는 것입니다. 판결을 내리시고, 아담을 에덴동산에서 추방하기 전에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십니다. 이 옷은 죄를 짓고 아담이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만든 옷과는 다릅니다. 무화과나무 옷은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변명, 자기 위안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옷은 나무 잎보다 더 강한 가죽 옷입니다. 이는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낙원에서 추방을 하지만, 그래서 하느님을 뵈옵기 어렵지만, 완전히 버리지 않으십니다. 당신의 손길이 담긴 가죽옷을 입혀 보내어 비바람, 추위 그리고 여러 어려움과 상처를 막아 주십니다.

우리 죄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느님입니다. 여러 시련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주신 가죽옷이 우리를 보호 해준다는 점을 믿고, 희망을 포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또한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구치소와 교도소, 그리고 공동체에서 떠나 있을 수 밖에 없는 이들을 여러 어려움과 상처를 보호해줄 가죽옷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위해

조현숙 루시아 / 서울구치소 남사 대표봉사자

1997년 12월 마지막 사형 집행 후, 가족이 없었던 최고수(사형수) 형제의 유품을 안고 오열하던 친구(봉사자)의 눈물을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 일을 계기로 갇혀 있는 형제들과 함께 나눔을 봉헌하는 봉사의 시간을 가져야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구치소에서 첫 인성 교육에 참여했을 때가 기억이 납니다. 닫혔던 수용자 형제들의 마음이 봉사자들과 만나는 횟수가 거듭되며 조금씩 마음의 문이 열리고 가슴에 뭉쳤던 그 응어리들을 풀어 놓을 때, 함께 했던 나눔은 감동으로 벅차올랐습니다. 특히 매년 2회씩 있는 세례식 때에는 변화된 형제들을 마주하는 순간, 주님의 사랑과 치유의 손길을 다시금 느끼게 해주었고 저에게 많은 보람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따금 출소한 형제들이 사회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다시 잘못을 저질렀다는 소식들 들었을 때는 봉사자들의 믿었던 마음에 금이 가기도 했지만, 주님께서는 상처받은 봉사자들의 마음을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볼 수 있게 도와주셨고 주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며 봉사와 나눔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구치소 봉사 활동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봉사자분들이 있습니다. 수용 생활에서 신앙체험을 경험한 후 굳은 믿음으로 활동하시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기쁨과희망은행'의 초석을 마련해주신, 이제는 고인이 되신 김기섭 요셉 형제님과 간암 말기의 판정을 받으시고도 마지막 봉사의 불꽃을 형제들과 함께하셨던 또 다른 요셉 형제님, 그리고 급성 백혈병 투병 중에도 봉사의 끈을 놓지 않았던 윤금례 베로니카 자매님까지. 자신의 아픔을 딛고 마지막까지 나눔을 아끼지 않았던 숭고했던 그분들의 봉사 정신을 이어받아야 함을 떠올리니 숙연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움의 손길이 간절한 수용자 형제들에게 적극적인 봉사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앞으로는 사회교정사목위원회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교정시설 봉사자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고, 이로 인해 더 많은 봉사자들의 참여로 이어져 사회 공헌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봉사자들은 간절히 바랍니다.

교정시설 봉사자들이 모든 수용자 형제들의 변화와 출소 후의 자립을 전부 돌본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선배 봉사자분들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떠올리며 단 한 사람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진실된 봉사를 계속해 나아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사형폐지' 법안이 통과되기를 기원합니다. 현재 잠정적 '사형폐지'로 인정이 되고는 있지만, 아직 입법화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 다양한 단체 및 기관과 연대하여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수용자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바라며 기쁜 마음으로 두 손을 모읍니다.

"건강한 이들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으나 병든 이들에게는 필요하다.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루카 5,31-32).

평화의집에서의 사색(思索)

박○○ 라파엘 / 평화의집(출소자 쉼터) 형제

†찬미 예수님!
며칠 전 내렸던 눈이 채 녹기도 전에 한쪽 구석에 싸여있는 눈 더미가 시야에 채워지는 동네의 모습들은 정겹게 느껴진다. 평화의 집 3층 생활관 옆으로 문을 열면 빨래를 널어놓기도 하고, 신선한 공기가 필요할 때 언제라도 가슴이 시원해질 때까지 들이마시며 사람 냄새나는 동네를 내려다볼 작은 공간이 있다. 이처럼 사람 사는 동네의 모습 하나만으로도 내게 작지만은 않은 가슴 속 포만감을 준다.

어느새 높은 담장 속의 공간을 나와서 생활한지도 4개월이 다 되어 간다. 높은 담 안에서의 비좁은 공간은 인간의 생각과 행동까지도 작은 공간 속에 가두었고, 그런 교도소에서 생활할 때에는 그렇게도 동경하고, 보고 싶었고, 거닐고 싶었던 세상의 거리가 막상 교도소 문을 나오는 순간 설렘과 자유로움의 기쁨은 한순간이었고, 현실이라는 막막함이 문밖에 기다리고 있었다. 어깨에 걸쳐져 있던 작은 가방의 무게는 기쁨과 희망의 가벼운 마음이 아닌 현실과 마주했다는 무거운 절망감으로 변해있었고, 집에 돌아와 보니 예상했던 대로 모든 것이 변해버렸고 문의 손잡이마저도 나를 처음 보는 이방인을 대하듯 했다. 그나마 조금 남아있던 희망이라는 알갱이까지 그 어디에 찾아볼 수 없었으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만이 새벽의 어둠과 함께 다가왔다. 출소하면서 남겨두었던 약간의 돈으로 모텔과 찜질방, 병원을 오가며 그 어디에도 정착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절친하게 지냈던 지인이나 형제 자식들을 보는 것조차 스스로 거부하게 되었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을 오가면서 생활 하다가 문득 "빛의 사람들"이란 간행물이 생각나서 전화를 하고 찾아가 처해져 있는 현재의 상황을 상담한 뒤 며칠 후 연락을 받고 '평화의집'에 입주해서 그동안 출소 후에 힘들었던 나의 몸과 마음을 추스르고 하나하나씩 그동안 계획 했던 일들을 진행하게 되었다. 우선은 지긋지긋하게 나를 괴롭히던 발목을 수술하고, 취업도 하게 되어 모든 생활의 질서가 바로 서기 시작 되었고, 하느님의 은총으로 결혼도 계획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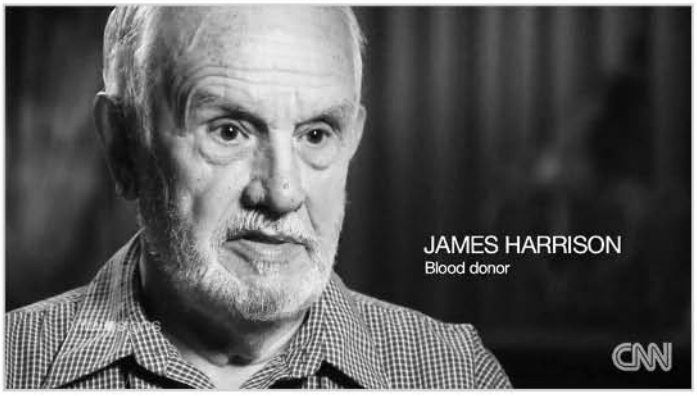
"하느님은 그 누구도, 그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평화의집에서 생활 하면서 와 닿는다. 기쁨과 절망이 함께하는 순간이 있다면 그것은 아마 나와 같은 상황에 처한 출소자 형제자매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곳에서의 4개월은 내 인생의 전환적인 계기가 되었다. 헌신적인 사랑으로 함께 해 주시는 신부님들과 직원들... 아직도 감사함을 말하지 못 했지만, 이글을 통해 감사함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인생에 어떤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어떤 노인이 되고 싶은가?"라는 나 스스로의 질문에 주저 없이 대답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살아갈 것이다.

"나무젓가락처럼 일회용이 된다 해도 나와 같이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빛의 사람들'"

황금 팔의 사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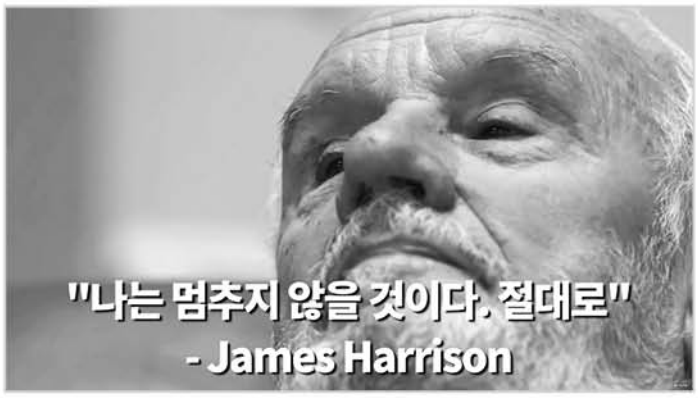
글_ 사회교정사목위원회 홍보부

알렐루야!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 하셨습니다! 이 은혜로운 때에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명과 평화를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도 모두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세상에서 유일하고도 특별한 것으로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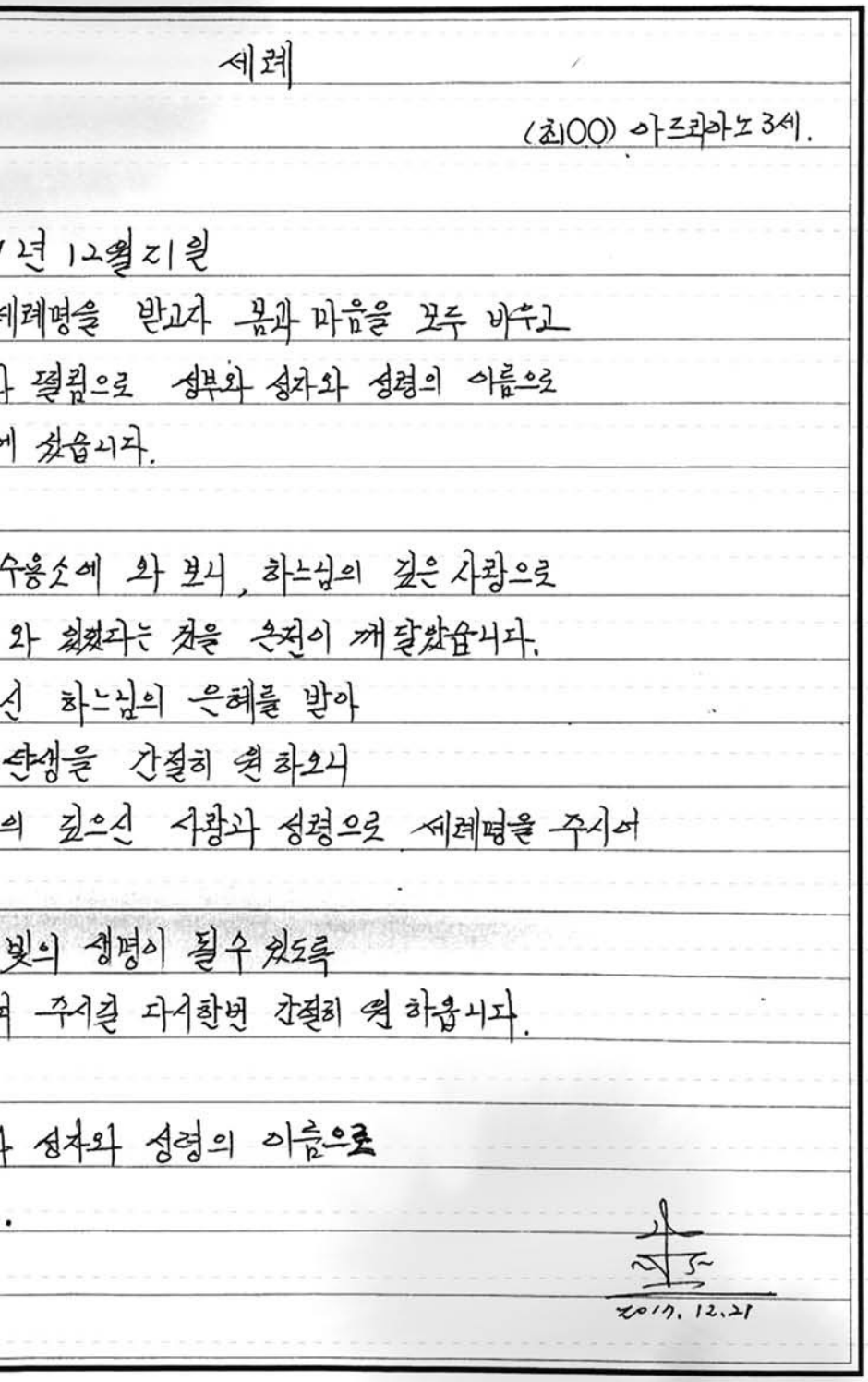


제임스 해리슨(81) [사진 CNN]

호주에 사는 제임스 해리슨 씨는 그냥 보기에는 주변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평범한 할아버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는 사람들과 다른 아주 특별한 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14살 때 큰 수술을 받게 됐고, 그 과정에서 과다출혈로 다량의 피를 수혈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만, 어렵게 알맞은 피를 찾아 수혈을 받고 목숨을 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술 후 깨어난 제임스 씨에게 그의 아버지는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수혈받은 13리터의 피 덕에 목숨을 지켰단다. 그것을 평생 잊지 말거라."라고 하며 그에게 잊지 못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로부터 4년 뒤, 제임스 씨는 우연히 헌혈하게 됐는데 이때 의사들은 깜짝 놀라게 됩니다. 몇 년 전 수술 당시 제임스 씨에게 잘못된 혈액형의 피로 수혈을 하게 된 것을 알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의 몸에서는 거부반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피 속에 있는 항체가 거부반응을 막아 잘못된 수혈 받고도 죽지 않았던 것입니다. 의사들은 그의 희귀한 항체로 Rh용혈성이라는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이 질환은 엄마의 항체가 태아를 공격하여 목숨을 빼앗는 무서운 병이지만, 치료제가 없어 수많은 아기들이 세상의 빛을 보기도 전에 목숨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피가 이 끔찍한 질환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란 것을 알게 된 제임스 씨는 백신 개발을 위해 목숨을 걸고 여러가지 실험에 임하여 결국 'Anti-D'라는 백신 개발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피로 만든 이 백신으로 지금까지 240만 명이 넘는 아기들의 목숨을 구하게 됐으며 심지어 당신의 손자도 그 백신으로 목숨을 지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제임스 씨의 피는 현재까지도 이 세상에서 유일무이하며, 그의 헌혈이 있어야만 백신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꺼이 자신의 팔을 내밀고 헌혈을 합니다. 주삿바늘의 대한 두려움이 매번 그에게 찾아오지만 그는 말합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세례

(최OO) 아드리아노 3세.

2017년 12월 21일

오늘 세례명을 받고자 몸과 마음을 모두 바쳐고
성령임과 떨림으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앞에 섰습니다.

이곳 수용소에 와 보니, 하느님의 깊은 사랑으로
우리가 와 있었다는 것을 온전이 깨달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의 은혜를 받아
새로운 탄생을 간절히 원하오니
하느님의 깊으신 사랑과 성령으로 세례명을 주시어

소금과 빛의 생명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다시한번 간절히 원하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17. 12. 21

2017년 12월 동부구치소에서 세례를 받으신 형제님이 정성으로 작성해주신 편지입니다. 하느님의 자녀가 된 형제에게 언제나 평화가 가득 내리길 기도하겠습니다.

천리향

어떠한 소리보다
아름다운 언어는
향기

멀리 계십시오.
오히려
천리 밖에 계셔도
가까운 당신

당신으로 말미암아
내가
꽃이 되는 봄
마음은
천리안

바람 편에 띄웁니다.
깊숙이 간직했던
말 없는 말을
향기로 대신하여-

– 이해인 클라우디아 수녀 –

마음달 (3)

양삼우
도로테아

후원알림마당

안내 말씀 드립니다

· 후원정보 변경 시 바로 연락 주세요.

- 거래 은행 및 계좌번호를 변경하고 싶을 때
- 후원금액을 변경하고 싶을 때
- 주소 및 연락처가 변경 되었을 때

* 반송우편물로 낭비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CMS 및 자동이체 후원을 권장합니다.

본 위원회는 금융결제원과의 협약으로 전화신청만 하시면 은행에 가시는 번거로움 없이 자동 결제되는 후원금 자동 납부 방식인 CMS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로용지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을 절약할 수 있사오니 많은 협조 부탁합니다.

· '빛의사람들' 소식지를 이메일 발송해드립니다.

소식지를 우편으로 받아보기 어려우시거나 우편비용의 절감을 원하시는 후원회원님께 이메일 발송을 해드리오니,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또는 유선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www.catholic-correction.co.kr

후원사업부: 02)921-5094

·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 부탁드립니다.

잔액 부족으로 인한 미출금이 많이 발생하오니,
CMS 및 자동이체 결제일에 잔액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절 취 선

계좌주 본인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를 이용한 출금에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안함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① 수집 및 이용목적: 자동이체서비스의 원활한 제공

② 수집항목: **(개인정보)성명, 전화번호, 주소, 계좌정보/(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③ 보유 및 이용기간: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 자동이체 이용종료 또는 해지 후 5년

④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자동이체 신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신청 절차에 의해 반드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동의하셔야 자동이체 신청가능
수집을 원치 않으실 경우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자동이체를 통한 정기후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고유식별정보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자동이체거래약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동이체를 신청한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금융거래정보(거래금융기관명, 영업점명, 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를 상기 거래금융 기관에 제공하는 것과 위 정보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약관과 '금융실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동의하며 위와 같이 자동이체를 신청합니다.

2018년 5월 후원회원을 위한 월례미사 및 피정

저희 사회교정사목위원회에서는 매월 첫째 주 월요일 후원회원과 회원가족들을 위한 미사를 봉헌합니다.
후원회원, 봉사자 외에도 사회로부터 소외된 수용자의 가족과 출소자, 그리고 범죄로 피해를 입은 해밀 가족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싶은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 일시 : 5월 14일 월요일 오전 10:30 ~ 오후 2시
* 장소 : 가톨릭회관 7층 강당

* 5월 축일을 맞으신 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오니 축일자분들의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

새로운 교정사목의 가족을 소개합니다. (1/17 ~3/12)

2월~3월에는 **권경옥 데레사, 이재성 프란치스코, 전성임 리타, 이정주 베드로, 김석민 사도요한, 최은주 카타리나, 이혜영 세실리아, 김은주 아녜스, 변유진 유리안나, 송철희, 문정2동 사회사목분과, 김묘식 데레사** 님께서 새로운 후원회원이 되어 주셨습니다. 후원하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사 알림

- 4월 2일(월) 천주교 사회교정사목위원회 창립48주년 기념일
- 4월 2일(월) 후원회원 월례미사 /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4월 14일(토) 해밀(범죄 피해자) 가족 모임 / 교정사목센터 성당
- 4월 28일(토)~29일(일) 전국 교도관 성심회 총회 / 제주도

후원 계좌번호 예금주 (사)천주교사회교정사목위원회

농협	386-01-013881	우리	1005-700-335190	국민	375301-04-003539
S C	109-10-276339	신한	100-019-558299	하나	209-910017-31705

후 원 신 청 서

후원자 성명		세례명		영명축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소식지발송	☐ 우편	☐ 이메일	☐ 원치않음	
후원금액	☐ 5,000원	☐ 10,000원	☐ 20,000원	☐ 기타 ( )원
금융기관명		이체일	☐ 5일	☐ 15일
계좌번호				*휴대전화번호 형식의 평생계좌는 [모계좌번호]를 적어주세요.
예금주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기부금영수증 원하시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 기입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너희는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찾아 주었다." (마태 25,36)